

새만금 ‘K-배터리’ 거점...전구체 공장 완공

LS-L&F배터리솔루션㈜
4100억 투자 전구체 제조공장 준공
공급망 안정·배터리 자립화 선도
전북, 이차전지 소재 산업 거점 도약

국내 대기업 LS와 L&F의 합작법인 LS-L&F배터리솔루션㈜이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공장을 완공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새만금산단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션㈜ 공장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의장 등 각급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와 함께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L&F의 허제홍 의장, LSMnM의 구동휘 대표, LSMetal의 문명주 대표 등 LS 계열사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공장 설립은 글로벌 비철금속 제조 역량을 갖춘 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을 선도하는 L&F가 손잡고 LS-L&F배터리솔루션㈜을 만들면서 지난 2023년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결실이다.

당시 새만금산단 5공구 4만 평 부지에 4,100억 원을 투입해 전구체를 생산하기로 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준공 이후에도 투자와 고용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대규모 생산거점 도약

지난달 30일 새만금산단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에 김관영 지사를 비롯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의장 및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LS그룹 구자은 회장, L&F 허제홍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망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지만, 그동안 국내 수급은 중국 등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새만금 공장 완공은 전구체의 대규모 국내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수 국

내 자본과 기술로 중국 자본을 전면 배제한 ‘K-Battery Alliance’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자립화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구자은 회장, 허제홍 의장, 구동휘 대표 등을 만나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이번 전구체공장 준공을 발판 삼아 새만금산단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의 RE100 산단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LS와 L&F가 협력해 전구체 국산화를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새만금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수봉 도의원, 지역아동센터와 ‘완주형 온종일 돌봄’ 방안 모색

완주군아동센터와 정책 간담회
돌봄 공백 예방·협력 체계 논의
전북형·완주형 돌봄 실효성 강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지난달 29일 완주가족문화회관 2층에서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역아동 돌봄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설장 및 대표 13명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이재명 정부 돌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의 온종일 돌봄 계획,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개선 요청, ▲아동복지교사 신규채용시 돌봄 공백 사전 예방, ▲도와 도교육청, 완주군과 완주군교육지원청 협력으로 사각지대



윤수봉 도의원

없는 전북형 돌봄 및 완주형 돌봄 체계 구축 등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수봉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완주군 아동

돌봄의 핵심 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형·완주형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이석연, 대법관 청문회 강행 비판

“요건 미비, 서둘러 국회 이해불가 책임없이 ‘조희대 탄핵’ 발원 안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이 조 대법관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 마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수사(修辭)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면서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통합위원장은 ‘이대통령의 선출직·임명직 권력서열’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판재상 서열은 선출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취기 파기환송에 대해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과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 가지 않는다”며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임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검찰청의 헌법기관과 관련,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의회 ‘의정활동 총정리’ 2025 가을호 발간

제420·421회 임시회 정리소식지
58건 조례, 건의·결의문 38건 수록
문화·농축산·교육 등 목소리 담아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달 30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가을호(제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20회·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생생한 현장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과맞춤형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민생의회로서의 역할과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8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 등 38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인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제도 개선과 농·축산업 현실을 고려한 한우산업 구조적 불균형 대책 필요, 낮은 인지도로 지원 제도가 미미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선생의 업적

을 기리고, 전북 교육 현장에 알리기 위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 ‘정음 내장산’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를 계기로, K-컬처의 뿌리인 전북의 존재감과 위상을 짚어봤다.

또한 10월, 가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온 김제 벽골제와 수호신 쌍룡놀이를 배경으로 한 표지 디자인과 간행물 편집 후기를 제작했다.

‘의정 타임머신’을 통해 제7대에서 제10대까지의 의정 이슈를 담았고, 한글날을 기념해 전북 출판문화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북 문화유산 답사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의정 소식을 이번 가을호에 담았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 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www.jbstatecouncil.jeonbuk.kr 또는 전화(063-280-3066)로 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의회



전북도, 2026년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전’

기재부 면담서 새만금 SOC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중점·신산업 필요성 집중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 등과 만나 새만금 SOC, 미래 신산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국회 단계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명중 재정성가침의관과의 면담에서는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1,738억원)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총사업비 2,437억원)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김제

옛 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및 스마트온실을 구축해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축사 확장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되살려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재생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나 과소 편성된 70여 건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보와 감액 방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가예산의 성공적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원팀을 이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예결소위 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기재부 장·차관 등 핵심 인사들 대상으로 지휘부 면담을 추진한다. 도지사 주재 전략 회의를 통해 주기적



전북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진=전북도>

으로 예산 반영 상황도 점검한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예산 반영률 극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끝

까지 힘을 합쳐 국회 통과 시점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미래 성장산업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산재병원 건립 시급”

전북권 산재병원재활시설 전문 “인프라 개선·장비 현대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재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북권에 산재병원이 없어 재활과 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에서도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안호영 의원

“지금이라도 전북 산재병원 건립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에서 기피하는 회복기 이후 재활과 만성 요양 환자 돌

봄 분야를 산재병원이 맡고 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산재병원 지원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산재환자의 조속한 직업 복귀와 근로자 맞춤형 복지는 노동존중 사회의 핵심 가치”라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임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41억 투입, 다가구주택 12동 조성 유학생 15명 추가 유치 53명 생활 진안·순창 이어 정읍도 조성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작은학교를 지키고 마을에 활력을 더할 농촌유학의 새 거점인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지난달 30일 임실군 지사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김호식 전북도 교육협력과장을 비롯하여 농촌유학 가족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과 유학생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준공식은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거주시설은 총 41억 원을 투입해 다가구주택 12동, 12세대 규모로 지사초·중학교 인근에 조성됐다. 준공을 통해 임실군은 농촌유학생 15명을 추가로 유치해 총 53명이 농촌유학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진안군과 순창군도 올해 농촌유학 거주시설을 완공해 각각 59명, 91명의 농촌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유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25학년도 2학기에만 257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했으며, 거주시설 조성뿐 아니라 유학경비 지원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호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장은 “농촌유학이 전북의 작은 학교와



전북도는 농촌유학의 새 거점인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지난달 30일 임실군 지사면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유학 가족들이 이곳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공공의대법 통과로 의료대란 해결해야”

“지역·필수·공공의료 취약 심각 의료인력 체계적 육성 시급”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여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감등 이후 총 4차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인원 1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 수련의 선발결과를 보면 세종특별시가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바쁜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지만 모집 정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등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안·성’을 비롯해 이른바 인기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으로 높은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더욱이 비수도관의 경우 핵의학과



박희승 의원

(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 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

지역의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의정감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1,106명 대비 36%가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공보의의 수 자체도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73개의 보건지소 중 1,053개에만 배치되어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17.3%에 달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반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D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으며,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동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 돌입

AI·ASF·구제역 차단 집중관리 22곳 상황실 운영·멧돼지 포획 등 농가방역 준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0월~내년 2월)를 맞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차단을 위해 가축 사육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14

개 시·군, 3개 유관기관 등 22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경기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백두대간을 따라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다.

전북과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이 이어져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동부권 5개 시군(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방역시설 점검을 보강하고 있다. 현

재까지 누적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약 3만 5,000두에 달한다.

도내 575호 양돈농가에 전담관 199명을 지정해 시설·환경을 점검하고, 외부 울타리·소독설비·전실 등 8대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재확인해 농가 유입을 차단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구제역 8년 연속 미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기록을 이어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 청정 축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전북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서식지 출입 금지, 남은 음식물 적정 처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중소기업 77.4% “철강, 美 관세 무관 품목”

중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77.4%가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

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복수응답)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기업 중 61.0%의 대미 수출 파생상품이 개별 바이어의 사양에 따라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응답했다.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 가능한 미국 현지 제조업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6.2%가 없다고 답했으나, 현지 업체 대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26.8%)으로 응답하며, 내년에는 미국 내 밸류체인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신규 추가 품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 등 순으로 답변했다.

추진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기준 완화

NICE 신용평점 879점 소상공인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1일부터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舊3등급)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 신청·접수도 시작한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카드

이용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舊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舊3~7등급)로 완화하고, 산불·호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1일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수, 업력,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승인 후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앱으로 가

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RISE센터 ‘2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AI·바이오·헬스케어 사업 등 추진…지역혁신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JB지식산업협력단(이하 전북RISE센터)는 지난달 3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차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대학이 AI, 바이오·헬스케어, K-컬처 등 핵심 분야에서 연구과제와 교육, 지역현안해결을 통해 지역혁

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공모는 △AI(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농수산식품 △K-컬처 지역현안해결 과제를 포함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및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및 지역공약 등에 발맞춘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분야의 대표 과제를 추가해 청년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약 64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학으로, 사업계획 접수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선정 절차는 3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결과는 2025년 10월 중 발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은 도내 대학을 통해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전북RISE성과관리시스템(https://portal.jbiu.or.kr)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는 혁신이라는 엔진으로 달려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성장의 경쟁이 아니라, 대학이 혁신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산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전북의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상진신협,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팜플렛·홍보물 배부 올바른 금융 정보 전달

전주상진신협(이사장 김현정)은 전주중앙신협·전주중산신협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상진·전주중앙·전주중산 협은 3GO 행사장 내에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팜플렛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부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검찰·금융기관 사칭, 대출방자형, 가족 납치·사고 방자형 등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교육했다.

합동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뉴스로만 보던 사기 수법을 직접 듣고 보니 더 실감난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전주상진신협 김현정 이사장은 “보이스피싱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께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사회의



금융파트너로서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교

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우리흑돈’ 맛·영양 과학적 입증 재조명

재래돼지 혈통 계승 신개념 한돈…유통확대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돈데이 10월 1일’을 맞아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을 재조명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3년 29.6kg 대비 2024년 약 30kg으로 늘었다.

돼지는 2024년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하며 돼지고기 역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은 한국 재래돼지 혈통을 계승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신개념 한돈이다.

상업형 돼지(LYD)와 동일 사양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색·풍미·다즙성·연도 등 관능 평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 시 육즙 손실이 적어 촉촉한 맛을 유지하고, 올레인산에서 기인한 고소한 향 성분이 풍부하게 발생해 구이로 조리했을 때 향미가 한층 살아난다.

삼겹살의 지방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흑돈’은 단일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풍미가 개선됐고 오메가-6/오메가-3 비율은 20.35로 상업형 돼지(LYD(23.06))보다 낮았다.

올해부터는‘우리흑돈’이 일부 대형마트에 입점해 그동안 온라인·직판 위주로 이뤄지던 유통이 상시 판매 체계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올해는 한돈데이와 추석이 이어지면서, 우리 돼지고기 가치를 이어지면서, 우리 돼지고기 가치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강근호 과장은 “돼지고기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돼지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탄소중립’ 개량형 깊이거름주기 보급 속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달 30일 경남 창녕의 농가 시험 재배지에서 ‘개량형 깊이거름주기 장치’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장치 개발 배경과 구조적 특징, 작동 원리를 설명한 후 실제 마늘 재배지에서 장치를 작동시켜 참가자들이 장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기관과 협업해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LX, 경영 위기 속 미래 인재 영입

신입사원 30명 채용예정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LX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LX공사 윤희필 경영지원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비상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신규채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농협네트웍스, 영농차량 무상점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달 30일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송병환)와 함께 조합원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확철 영농차량 무상점검을 통한 농업인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영농에 활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협네트웍스와 함께 실내소독·와이퍼·워셔액·오일·냉각수·공기압 등 주요 부품 점검 및 간단한 소모품 교체 서비스도 병행

됐다.

영농차량점검을 받은 조합원은 “농사일로 바빠 차량 관리가 소홀했는데, 이렇게 농협에서 직접 챙겨주니 안심이 된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이 영농철에는 바빠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개최

드림 ON 프로젝트 일환

현실적 어려움·지원 필요성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카페 양화소록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드림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드림 ON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 공공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도·전북도자립지원담당기관·새만금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 2021년부터 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는 에세이·비밀에 기대어’의 저자 허진이 작가 강연자로 나섰다.

보육원에서 성장해 스무살 무렵 자립생활을 시작한 허 작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 작가 스스로가 결혼 후 아름다운 재단 캠페이너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여러 사연을 중심으로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사연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이들이 외롭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남호’ 본격 행보

공론의 장 형태 ‘진짜배기 교육포럼’ 출범 계획 발표 “지속가능 자산학연 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전 전북연구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학교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하면서 튼튼한 교육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도내 교사·학부모·전문가들이 전북교육 발전의 뜻을 모아 ‘실력향상·교육공동체 구현’ 등 교육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공론의 장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폐쇄적인 학교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통합교육으로 교육제도 변화를 역설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과거에 대한 성찰, 현재의 진단, 미래를 향한 준비 등 모든 과정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이 더 큰 세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최근 뉴스1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2위를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북연구원장을 그만둔 지 한 달 채 되지 않았는데 과분한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화두가 되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는 교사로서,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정치 참여는 일정 부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입은 어느 정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

한편 최근 뉴스1 차기 전북교육감 여론조사에서 16.2%로 2위를 기록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9월 1일 자로 전북연구

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전북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최성민 기자

전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7곳, 수업공개

총 14차례 실시...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기대

전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이 하반기 수업공개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모델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도내 영유아 학교 시범기관 7곳이 이달까지 총 14차

레 수업공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충북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수업공개는 지난달 30일 조록빛유치원(전주)을 시작으로 △10월 17일 해바

라기유치원(김제) △10월 21일 테바솔 어린이집(전주) △10월 23일 가온누리 어린이집(완주) △10월 28일 이리성심 유치원 △10월 29일 샘물숲어린이집 △10월 30일 쉼마어린이집으로 이어진다.

상반기는 영유아학교지원단 멘토와 시범운영 기관 교(학)원, 유아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수업공개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공사립유

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영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공개뿐만 아니라 운영 나눔 등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필리핀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교류

전북 미래교육 현장 참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필리핀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연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16명이 참가해 전북의 디지털 교육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

연수단은 전북의 AI 중심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활용 수업 등 전북의 미래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어진 교사 간 수업사례 나눔 시간에는 전북 교원들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와 경험을 공유하고, 카비테 교원들은 자국 교실에서의 활용 사례와 과제를 함께 나누며 활발히 토론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순창 장류마을, 강전산 등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체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는 연수단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함께 수료증이 수여됐다.

필리핀 교원 연수단장은 “한국의 디지털 교육에서의 탁월함을 보았고, 너그러운과 협력에 깊이 감동받았다”며 “전북에서의 경험을 필리핀 교사들과 나누고, 교실에서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전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초청 연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교육협력의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교육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홍보 협업 프로그램 ‘새만금 버디버디’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북대 서인석 교수, 산학연 협력 공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

신소재 분야 연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산업 발전 기여

전북대학교 서인석 교수(공대 신소재 공학부)가 산학연 협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상은 최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서 교수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5년, 전북대에서 9년간 근무하며 신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특히 산업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 지

역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 23편, 국내 학술지 7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46회 발표를 이어가며 신소재 및 배터리 분야의 최신 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을 통해 ㈜정석케미칼과 공동연구한 ‘차세대 고효율 이차전지용 전해질 소재(황화리튬)’의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으로 이어져 기업 매출 증가, 양산공장 증설, 사업화 성과로 직결되며 산학협력 R&D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 교수는 “이번 수상은 대학과 기업



이 함께 일궈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신소재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버디버디’ 성료

홍보 콘텐츠 제작 협업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홍보 협업 프로그램 ‘새만금 버디버디’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6개월간 ‘새만금, 2세대와 함께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재학생들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

라본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개 우수 작품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조운옥 학과장은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와 즐거움이 함께 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만금에 깃든 많은 분들의 애정과 노력이 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추석성묘 안전수칙

애초기 사용

- 애초기 사전 점검과 안전장비 착용 필수!
- 애초기 작동 시 돌이나, 나뭇가지등 장애물 제거!



벌쏘임 주의

- 냄새가 강한 향수및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차분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기!



해충 주의

-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고 해충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 귀가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반드시 합니다.



익산시·원광대, 도서관 협력 독서문화 확산·상생 발전 도모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도서관 협력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상생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과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난달 30일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역사회 도서관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도서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상호 주최하는 독서 행사·문화 프로그램 공동 참여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교류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상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8일 추석 한마당 큰잔치 열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먼저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과 4일 오후 1시에는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와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극이 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5일부터 7일까지는 오후 1시 30분마다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져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박물관은 역사체험극, 풍물놀이, 마술, 저글링,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김봉근 문화관광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무성서원 토지 15필지 국가문화유산 토지 지목 변경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며 역사적 품격 회복에 나섰다.

무성서원은 지난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용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7월에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를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더불어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이 힘을 모았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사적지로 공식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유적지 본질에 부합하는 지목 정비는 국가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민생안정 종합상황반' 가동

“안전과 편의 최우선” 재난·재해·산불방지 등 8개 분야 대책 마련

정읍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5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8개 분야에 걸친 종합상황반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재해, 산불방지, 의료·방역, 물가 안정,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전기·가스·화재 등 생활 밀접형 안전사고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재난·재해 대책반과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진료 서비스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민생경제 지원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15%로 상향해 명절 소비 진작에 나선다. 생활환경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한다. 생활쓰레기는 5일과 6일(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수거되며, 생활환경대책반과 상하수도대책반이 상시 운영돼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귀성객 편의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정읍역, 버스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혼잡 예상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교통대책반을 운영해 정체 해소에 나선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민과 고향을 찾아주시는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5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돌려받아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

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

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한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0원이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이 환급된다.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 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앙 유타·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명절 연휴 소아 응급진료 정상 운영

지역 의료기관 협력 응급진료 체계 유지

익산시가 소아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 안전망을 가동한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응급실을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명절 연휴 안정적인 소아응급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원광대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 보건소장과 담당자,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소아청소년과장·응급의료진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휴 운영 방안,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응급실 내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실 운영'을 추진해



터 소아진료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원광대학교병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포함)을 확보하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을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진료 구역을 마련하고, 익산시는 의료 인력 보강을 위

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아응급실은 평일은 18시부터 24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대로 신속·정확한 진료를 제공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에도 지역 소아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주요 성수품 집중관리 전통시장 이용 당부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활동 캠페인을 지난달 30일 공설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경제의 안정 도모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한국어 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게를 방문해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성수품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와 친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번 활동에 앞서 시는 주요 성수품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을 예상해 지난달 24일부터 물



가대책종합상황실을 열었으며, 오는 9일까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4개 반을 편성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시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이현헌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응체계를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로움’ 구매한도 대폭 상향

기존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익산시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과 시민의 날(10월 3일)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9월에는 충전 인센티브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매한도까지 대폭 상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0월 중 다이로움을 100만 원까지 충전할 경우 1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60만 원 충전 시 제공되던 7만 8,000원보다 5만 2,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시민들의 체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3~12일까지 총 239면 운영

정읍시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시내 주요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4개소, 총 239면을 무료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새암로 공영주차장(수성동 575-1, 37면) △시기 도심 공영주차장(시기동 230-6, 41면) △조곡천 돌봄마당(시기동 364, 70면) △청년꿈터 주차타워(수성동 527-3, 91면)

등이다. 이들 주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돼 정읍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를 찾는 시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한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라는 효과도 예상된다.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원도심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침체됐던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

전공무원 지역경제활성화동참

익산시 전 공무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 이후에도 전통시장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날 정현율 익산시장과 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기에 나섰다.

이날 정현율 시장과 직원들은 북부·

익산장, 남부·구시장, 중앙·매일·서동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 시는 장보기 특별기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통시장 안에 있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을 다이로움으로 결제한 경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를 1만 원을 지급한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총력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 귀성객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와 겹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4시간 가축전염병 신고 접수와 방역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2인 1개 반 체제로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기존 1개소였던 거점소독시설도 2개소로 확대했다. 통제초소 6개소도 함

게 운영해 가축과 차량의 외부 전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인 2일과 10월 10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방제단 차량 7대와 시 자체 소독 장비 3대를 활용해 철새 도래지와 가축 밀집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추석은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로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축산농가와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인구감소 대응 총력 강조

10월 중 연석회의서 추석연휴 안전대책 농촌 활력 제고 등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월 중 연석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응, 농촌 활력 제고, 분기별 성과 관리, 추석 연휴 대비 안전대책, 행정전산망 화재 사고 대응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군 정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복농촌프로젝트'와 관련해 부안군은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특산물 미식 산업 개발과 웰니스 체험형 관광 등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

수는 “농촌이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일자리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활력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 부서에 신규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주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전북도의 '전북사랑도민 제도'와 함께 부안군은 자체적으로 '부안사랑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출향민과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소비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권 군수는 “관계인구 확대 정책은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 대응책”이라며 제도 홍보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군정 성과의 가시화와 내년도 도약의 중요한 시

기로 규정하며 예산 집행과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곧 내년도 예산 확보와 군정 발전의 발판이 된다”며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 화재, 위생, 방역, 상하수도, 응급의료 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도로, 전통시장,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군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읍·면이 맡은 분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국제종자박람회 준비 ‘착착’

22~24일 개최 우리 품종 우수성 세계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 국제종자박람회'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백산면 씨앗길 232)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국내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씨앗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란 슬로건 아래,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

과 전·후방기업등 9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해외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 지원을 강화해 81억 원 규모의 종자 수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차례의 조직위원회를 통해 종합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현황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포(4ha)에는 총370여품종을 전시했으며, 전문가의 생육자문을 받아 최상의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종자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5일부터 2주간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박람회 종료 후인 10월 27일부터 2주간 온라인 사후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



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가 국내 우수품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의 미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김제지평선축제’ 8일 막 올려

8~12일 K-콘텐츠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풍성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 고민된다면 김제를 주목해야 한다.

별곡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번 지평선 축제는 추석 명절과 맞물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화려한 야간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올해는 특히 단야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축제의 중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야설화과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상영관을 비롯해 멀티플렉서(실감미디어) 체험관과 4D체험관이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선사한다.

여기에 핑크퐁과 싸리퐁이 캐릭터샵, 김제 시민들이 간직해 온 소중한 기록

을 담은 김제사진관까지 더해져 김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됐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싸리퐁이 달고나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함께 달고나를 만들며 K-콘텐츠 속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평선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아궁이 찜밥 짓기는 고무파, 콩 등 지역 농산물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지평선 굽스와 함께 새롭게 보완돼 참여 가족들의 식사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특별히 소원을 적어 날려보는 소원원 날리기 한마당도 준비돼 있어 추석에 모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본질인 농경문화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벼 수확,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등 한국 고유의 전통 농업문화를 직접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도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

다.

매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뚜기잡기 프로그램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주점 이벤트와 참여자 선착순 이벤트가 함께 진행돼 메뚜기 조립 모형과 귀여운 모자가 선물로 제공되며,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가득한 지평선 키즈파크는 지난해 인기였던 에어바운스를 한층 더 보완해 규모를 키우고, 주변에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는 민족 대명절 추석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가족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특히 모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발전하는 축제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10월 한달간 최대 20% 할인

추석 맞아 군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특별할인은 △상품권 구매시

10% 선할인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10% 캐시백 적립을 통해 최대 2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해 군민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 구매 시 10%(1만 원) 선할인을 적용받아 9만원에 구매하고, 이후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적립돼 실질적으로 최대 20%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 특별 할인을 통해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의 민생소비쿠폰이 더해져 군민 모두가 더욱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갯벌,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4억8800만원 확보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과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2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4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창갯벌은 ‘홍보지원’과 ‘활용프로그램’ 모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5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쓰면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도 역시 3년 연속 선정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철새 탐조대회 ‘고창갯벌 비버드레이스’를 비롯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고창갯벌 세계유산

학교’, 갯벌의 가치를 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OUV 공감 콘텐츠’로 구성된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탐조 문화 확산을 위한 탐조박람회 ‘고창갯벌 버드왓쳐스데이(Bird Watcher’s Day)’, 갯벌의 소리와 풍경을 함께 즐기는 ‘고창갯벌 사운드워킹(Sound Walking)’, 캠핑과 탐조를 결합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창갯벌 청년캠프’로 구성된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갯벌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창갯벌의 가치 확산과 인식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5년 연속일자리 정책성과인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평선(지역특화 평생일자리로 지역소멸위기 선제대응)’이라는 민선8기 일자리 비전아래, 산업·계층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집중 추진한 성과로 2021년과 2022년 우수상,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그간 특장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공격적 투자유치를 통해 대기

업 ㄷ두산을 비롯한 10개 기업을 유치하고 수출지원책 등을 강화해 기업의 고용을 촉진, 제조업 분야 종사자 581명의 고용창출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전국 최다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는 등 농업고도화를 통한 청년 농업인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정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 평가

청렴문화 정착 박차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위원장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2025년 부안군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선정된 6건의 시책들을 대상으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발표를 듣고 파급성, 지속성, 노력도 등 세부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안 로컬푸드 인증부터 판매까지 운영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 향상을 위한 ‘투명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계약·회계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상시 자문 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튼튼한 구조로 계약행정의 리빌딩’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패 취약분야 개선시책을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청렴한 공식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부안군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 공무원 및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스로론티, 소방시설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선수주범하기 위해 각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 등 공공에서부터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호곤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인 화합·소통 한마음 대회 성황

(사)고창군귀촌귀촌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25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창을 사랑하는 협의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고창군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으며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군수 표창과 군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2부 행사에서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 농악 한마당과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박만석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한마음 행사는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2의 고향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협력이 고창군의 인구정책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을 맞아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연구소(소장 김양식)와 전북사학회(회장 이병규)가 공동 주관했다. 독립기념관 정경민 연구원의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학농민혁명’ 발표로 시작해 조재근(서강대), 신진희(경국대), 최진욱(고려대)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이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양식 소장을 좌장으로, 윤상원(전북대), 배항섭(성균관대), 송진현(경북대), 이병규(전북사학회)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펼쳤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마무리...청년 체감 정책 수립 목표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25 부안군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완료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16개 관련 부서팀장 등이 참석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용역 추진 개요 △국내 청년정책 동향 및 부안군 현황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제언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 제언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숙원사업 공설추모공원 ‘탄력’

봉안당국도비12억7천 확보 ‘속도’
연면적 1,000㎡ 6천기 수용 신축
시급한 시설 확충 군민 불편 해소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비 10억 5천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비용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민 복지 차원에서 시급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순창군>

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현재는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진행 중으로,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가 사업 전반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96억여원을 들여 자연장지, 봉안당, 산분장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절차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꽤저’

5년 만 성과…노동부 장관 표창
청년고용률 43.2% 달성 ‘역대 최고’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일자리 대표 시상식이다.

남원시는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5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일자리 창출’을 생존전략으로 삼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바이오 산업 육성 △전통문화 활성화 △스케층



남원시는 9월 30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별·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농촌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2024년 5대 집중 분야로 선정해 일자리 현안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 등 16개 지원사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 43.2%로 자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통계청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4.3%p가 증가한 74.7%(‘23년 70.3%→’24년 74.7%)를 기록했으며, 여성고용률 68.1%(+3%p), 취업자 수 44,600명(+800명), 상용근로자 수 16,400명(+300명) 등 모든 고용 지표가 전년비 증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3일~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운영

완주군이 추석 연휴기간(10월 3일~10월 9일)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군은 연휴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13개소, 문 여는 병·의원 38개소, 약국 29개소를 운영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톡톡앱(App)△완주군홈페이지△완주군보건소상황실(063-290-3015)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완주군 보건소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는 물론,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와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공공약간·심야약국(운영시간 오후 9시~자정)인 고산면 소재 남문약국, 삼례읍 소재 세화약국을 이용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로 신고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집 근처 병·의원, 약국 이용 시 129,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완-전 상생사업 기공식 시기 조정해야”

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우려 표명
“민감한 시기 강행은 혼선 우려”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위원회(위원장 서남웅)는 지난달 30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이 추진 중인 만경강 물고기 철길 조성사업·상관저수지 둘레길 기공식과 고산 파크골프장 준공식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위는 “해당 사업들은 2022년 11월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합의한 상생협력사업으로, 예산과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논의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대의 행사를 강행할 경우, 상생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통합 찬성의 신호로 오인될 수 있고 군민 여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월 1일로 예정된 만경강 물고기 철길 조성사업 기공식에 대해 “전주시 구간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완주군이 서둘러 단독으로 기공식을 진행한다면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서남웅 위원장은 “지금은 통합 논의가 한창인 만큼, 이러한 대의 행사가 군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행사 시기

조정이나 취소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식 의장 역시 “의회는 이미 상생협력사업이 통합과 연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직접 밝힌 것처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과 무관하게 당초 합의대로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협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이 합의됐으며, 14개는 완료 나머지 14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기업인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17개 기업·유관기관 참여
인력·근무환경 등 개선 논의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인과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상㈜,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한주세라믹스, ㈜스퀴즈팩 등 17개 기업 대표와 관계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 노후 근무환경 개선,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기업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논의됐으며, 군은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순창군은 올해 근로자 출·퇴근 승합차량 유튜브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개선 지원,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 임금 지원,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놀이로 실천 강화’

흡연 폐해 등 생활습관 교육
실습에 놀이 요소로 흥미 유도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아동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흡연·음주 폐해 교육 및 음주안전 체험, 구강·위생교육, 손 씻기 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클라이밍 신체활동, 신비의 방(태아성장과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건

강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풍선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놀이 요소를 결합해 흥미를 유도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전화신청 또는 구급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 방식을 도입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많은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필리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카가얀주 람로시 현장 면접 진행
150명 지원 50명 최종 선발

완주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리핀 현지로 직접 찾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진행했다.

군은 최근 필리핀 카가얀주 람로시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면접에는 총 150여 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100명이 면접에 응시했다. 지역 농가의 인력 수요와 현지 지원자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현장 면접은 체력 검사와 심층 면접

으로 진행됐으며, 체력검사에서는 걷기, 악력과 배근력, 기능검사 등을 통해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확인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지원 동기와 태도를 살펴 성실성과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플로렌스 올리버 B. 파스쿠알(Florence Oliver B. Pascual) 람로시장이 직접 면접단을 맞이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단순히 근로자를 선발하는 자리를 넘어, 두 지역 간 우호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완주군과 람로시는 계절근로자 파견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의 뜻을 함께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동계 밤, 중국 수출길 올라

첫 선적식 본격 해외 공략 나서
올해 수출 목표 250톤~65억

순창군 동계농협이 지난달 30일 동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밤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안찬우 농협 전북지역본부 부분부장, 최형우 ㈜트루빌 이사, 밤 작목반 회장, 옥광 밤 공선회 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계 밤의 해외 수출 확대 의지를 다지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선적식이 동계 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인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동계 밤 수출은 약 250톤, 6억 5,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선적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 관계기관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1회 완주 만경강배 트레일런
성공 개최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제1회 완주 만경강배 트레일런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고산자연휴양림을 출발해 안수산과 위봉산성을 경유해 돌아오는 코스로, △36km △22km △7km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남자 36km 부문에서는 김형아 씨가 4시간 58분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36km 부문은 신민아 씨가 6시간 30분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극한의 도전을 완주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 연계해 운영되며, 참가자 경품과 식대를 모두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축제와 체육행사의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완주의 먹거리와 문화를 함께 즐기며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행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완주를 스포츠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혜택 풍성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가을철을 맞아 다양한 무료·할인 혜택을 담은 ‘어텀패스(Autumn Pass)’를 선보인다. 가을시즌 주요 행사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피오리움은 개관 4개월 만에 8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모션은 △추석 연휴 △남원 3대 가을축제 △여행가는 가을 남원 △할로윈 등 주요 가을여행을 주제로 운영된다.

먼저 추석 연휴에는 어린이와 경로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진행하며, 남원 3대 가을축제(△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산 야행)기간에 방문 인증을 하면 어린이·청소년 무료입장을 제공하여 남원 축제와 전시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월 31일~11월 1일 할로윈 기간 코스튬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야간 무료입장과 기념품을 증정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가을 프로모션’과도 함께 한다. 10월, 11월 두 달간 ‘여행가는 가을 남원’을 통해 남원시민과 동행인 무료입장, 타지역 축제 방문 인증 시 50% 할인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문화혜택을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준고랭지 여름배추
새 소득작목 가능성 확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추진한 2025년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여름배추 재배 및 농가 소득화가 가능한 작목임을 확인했다.

사업은 강원도 등 배추 주 생산 지역의 연작피해로 인해 고랭지 여름배추(8~9월 출하) 재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재배 지역을 고랭지에서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남원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추진됐으며 우리 시에서는 운봉, 인월, 아령에서 1.2ha를 식재하고 9월 29일부터 9일간 출하 작업을 마무리했다.

연초 2월 농촌진흥청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at에서 전량 구매해 농가소득에도 기여했다.

김장배추 대비 수확량은 70%정도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소득은 조소득 기준 2배 이상 높은수준으로 다양한 고온극복 기술을 통해 여름배추 생산 시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상도푸드, 고향 김제 금구면에 팝콘치킨 65박스 전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주)상도푸드(대표 송기봉)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400만원 상당의 팝콘치킨 65박스를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주)상도푸드는 식품개발의 선두 주자로서 상도(商道)라는 회사명처럼 신뢰와 도리를 더해 위생적인 신공장에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축산물 HACCP을 인증받아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송기봉 상도푸드 대표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곤 금구면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상도푸드 송기봉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소중한 후원물품은 경로당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어르신 열정 가득”

완주군, 신바람 체조대회 성료

완주군이 지난 주말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제 13회 건강 한마음 ‘쌍쌍쌍쌍 신바람 체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 함께 진행돼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높였다.

행사는 13개 읍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출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신바람 체조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다지고 건강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현장에는 출전팀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 주민으로 구성된 응원단들이 다양한 도구와 응원법으로 힘을 보태며, 경쟁보다는 단합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세아베스틸, 추석맞이 군산시에 백미 10kg 513포기탁

1,900만원상당백미 전달 ‘세상을아름답게 기업 정신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kg 513포(1,9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민족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세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승환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성일유엔아이 탁구선수단, 제19회 전북도 장애인체육대회서 3위

복식 경기서 공동 3위 차지

남원시보건소와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원시 대표로 탁구 선수단(성일유엔아이)이 참가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8명과 임원 3명이 단식, 복식 및 단체전에 출전했으며, 선수들은 지난 제18회 대회 탁구 복식 은메달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훈련해 왔다.

그 결과 복식 경기에서 공동 3위

를 차지하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선수들이 보여준 끈기와 도전 정신을 보여준 결과로 남원시를 대표하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성일유엔아이 박경아 시설장은 “이번 대회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원시 장애인체육의 지력을 전북에 알릴 절호의 무대였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종로약국, 1천만원 상당 어린이영양제 기탁

익산시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익산종로약국(대표약사 문규성)’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익산종로약국은 성장기 아동들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어린이용 멀티비타민 영양제 125상자(1,0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문규성 대표약사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전달된 영양제는 꼭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농협, 생활용품 꾸러미 100박스 전달

정읍농협은 지난달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행복나눔 꾸러미 100박스(1300만원 상당)를 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꾸러미는 라면과 화장지 등 13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식품으로 구성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국한우협회 부안군지부, 명절맞이 한우 100kg 기탁

전국한우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정병만)는 지난달 2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안군 취약계층에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 한우고기 100kg(총 38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정병만 지부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우고기를 기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한우협회 부안군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한우고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한우고기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명에게 전달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백미 50포대 기탁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항숙)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번암면사무소를 방문해 성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백미(10kg) 50포대로, 추석 연휴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성품 기탁은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가 서로를 살피고 돕는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항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안전한 명절을 위한 전기 안전 수칙 5계명



하나의 멀티탭에
다수의 주방기기
연결 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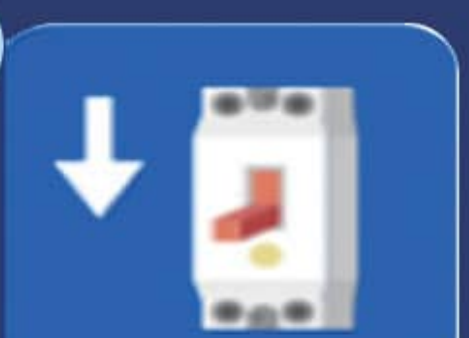
집을 비울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끄기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이 훼손 된 곳은
없는지 확인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지 않기



전시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원끄기

"완주, BTS 발자취 따라 조선의 서사를 걷다"

완주는 지금, 한국의 역사와 K-콘텐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관광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였던 이 땅은 BTS의 문화적 발자취까지 품고 있으며, 역사와 콘텐츠, 생태와 교육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교육여행과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확장 가능한 복합 문화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다시 만나는 영웅, 태조 이성계'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로컬콘텐츠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대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총 10회 중 9회가 이미 운영되었으며, 마지막 10회차는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이 중 4회가 완주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완주가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BTS 촬영지라는 문화적 자산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생태가 융합된 교육여행지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 도약

역사적 상징성과 콘텐츠 자산이 만나는 공간

완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운명을 가른 두 전투, 웅치전투와 이치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웅치전투는 조선 관군과 의병, 그리고 민초들이 힘을 모아 왜군을 막아낸 임진왜란 초기의 의미 있는 승전으로 기록된다.

이는 조선의 국난극복 서사에서 최초의 집단적 저항이자 승리로 평가되며, 완주가 조선왕조의 생존과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치전투는 그 흐름을 이어간 결정적 전투로, 조선의 저항 의지를 강화하고 전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한 사건이다.

또 완주는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선 초기 왕권 다툼의 중심인물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한 뒤 완산 일대에 유배되었으며, 그의 위패는 완주 봉동읍 구만리의 봉강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지역에는 그와 관련된 설화와 구전이 일부 전해지며, 이는 완주의 역사적 깊이를 더해주는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은 BTS라는 현대 콘텐츠와 만나 더욱 강력한 관광 자산으로 작용한다. 완주 오성제는 BTS가 화보 촬영을 진행한 장소로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린다. 단순한 촬영지를 넘어, 팬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사진을 남기고, 그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일본 BTS 팬클럽 '아미' 26명이 완주를 방문해 오성제와 인근 관광지를 탐방했다. 이들은 단순한 팬투어를 넘어, 조선의 건국 서사와 BTS의 문화적 상징성을 연결하며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체험한 느낌"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BTS 촬영지는 오성제를 중심으로 위봉산성, 아원고택, 용암상회, 비비낙안 카페, 페라글라이딩 체험장 등으로 확장된



다. 이들 장소는 BTS의 감성적 이미지와 연결되며, 팬들에게는 '성지순례'의 코스로, 일반 관광객에게는 감각적 콘텐츠 생산지로 기능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오성한옥마을 등도 함께 연계되며, 완주는 콘텐츠 친화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교육여행지로서의 입체적 가능성

완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여행지로서의 입체적 매력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은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였던 웅치·이치 전투의 현장이자, BTS 촬영지라는 글로벌 콘텐츠 자산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만경강 발원지를 품은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만경강 발원지와 연계한 생태관

광은 교육여행 콘텐츠로서 매우 유리하다. 학생들은 강의 시점에서 물의 순환과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속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완주의 자연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생태적 사고를 자극하는 살아있는 교실이다.

이와 함께 웅치·이치 전투 현장은 역사적 감성선과 공간의 상징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선왕조의 위기와 민중의 저항이라는 서사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다. BTS 촬영지인 오성제, 아원고택, 용암상회, 비비낙안 카페, 페라글라이딩 체험장 등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흥미를 유발하며, 콘텐츠 생산의 장으로 기능한다.

완주는 이처럼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기록하는 '참여형 학습 여행'이 가능한 지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의 확장

완주의 관광자원은 국내 교육여행뿐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도 확장할 수 있다. BTS 팬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이 완주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팬투어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일본 아미 그룹의 방문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국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BTS 촬영지와 역사유적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완주를 'K-관광의 성지'로 브랜딩할 수 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지역의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전략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소비

뿐만 아니라 생산에 적극적인 팬덤의 특성은 완주를 '참여형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완주는 지금, 콘텐츠와 서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관광의 미래를 열고 있다. BTS의 흔적과 조선의 국난극복 서사,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산과 생태자원이 융합된 이 공간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교육과 창작, 체험과 확산이 가능한 복합 플랫폼이다.

교육여행 유지와 글로벌 콘텐츠 관광



상품 개발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정규화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며,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실행이다. 완주는 그 중심에서, 한국 관광의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인 회안대군 이방간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방간은 조

산성, 아원고택, 용암상회, 비비낙안 카페, 페라글라이딩 체험장 등으로 확장된

순창군의회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군민의 행복과 순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손종석
의장

이성용
부의장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마화룡
경제산업위원장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